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소승불교의 상징은 석가모니불이 시며, 대승불교의 상징은 나무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님 이십니다. 그럼 대승불교에서 부처님 말씀 또는 가르침은 석가모니불이신지 아니면 나무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님인지 궁금합니다.

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너무 부담이 큼니다. 저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으신 채 저에게만 책임을 다하라 하니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A 대승과 소승은 설하신 부처님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 100년 후 부파불교 시에 크게 남방불교 북방불교로 나뉘게 됐는데, 북방불교는 대승이고 남방불교는 소승이라 합니다. 대체로 동남아 지역은 남방불교이고 한국, 중국, 일본 등은 북방불교입니다. 소승은 자신의 성불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고, 대승은 자리아타 즉 나도 성불하고 너도 함께 성불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A 제사를 모시기에 현실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 분담을 하자는 제안을 하셨다가 어머니께서 반대를 하셔서 난감해 하시는군요. 장남에게 집안의 모든 책임을 지라는 것은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사는 살아 있는 가족들이 모여 조상을 모시고 기리는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아있는 가족들의 모임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 나눠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생활은 일반적인 관습과 문화의 영향이 큼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나눠 지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어머니의

“장남이면 무조건 제사를 다 모셔야 하나요?”

“가족의 화합을 우선시 하는 것이 장남의 역할”

부처님은 삼신(三身)으로 구분합니다. 삼신에는 법신(法身), 보신(報身), 화신(化身) 또는 응신(應身)이 있습니다. 법신은 법은 영겁토록 변치 않는 만유의 본체(비로자나불)이며, 보신은 인(因)에 따라 나타나는 불신(아미타불)을 말합니다. 화신 또는 응신은 중생의 원에 따라 화해 나라는 불신, 여러 보살님(석가모니불)을 말합니다.

가치관으로 수용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방법의 간소화나 변경 등 지내는 사람의 여건에 맞춰 타협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는데 나의 입장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한다면 상대를 설득시키기가 힘들게 됩니다. 어머니는 물론 형제들과도 서로 대화가 필요한 법입니다. 집안의 만이로써 동생들에게 지시를 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대화를 해야 불화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장남이 제사를 지내더라도 형제들과 친척들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잘 이해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내담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어머니께 설명을 드렸다고 하셨는데 다시한번 가족들에게 자신의 행편을 솔직하게 터놓으면서 서로가 편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에 맞춰 제사를 지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심리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법 등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서로에게 좋은 방법을 찾아 화목한 가족, 우애 있는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24시간 자비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상담망 아하엑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전화)

“움직여야 활기 넘치고 좋지”

연꽃마을, 용인노인전문요양원 개원식 및 효사랑축제 개최

행복법당 탐방 용인노인요양원

10월 9일 초가을, 화창한 날씨 속에 경기도 용인 용인노인요양원 앞마당에 700여 어르신들이 모였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효사랑 축제에 참여한 지역 어르신들이다.

효사랑 축제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이 주최하는 대표적인 어르신 축제다. 연꽃마을은 효의 사회화와 인식 확산을 위해 매년 효사랑 축제를 비롯해 전국 효사랑 마라톤, 노인사진공모전 백일장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아이구~ 마을에만 있으면 며느~ 이렇게 나와서 공연도 보고 움직여야 활기 넘치고 좋지~”(김춘자·용인 처인구)

노인의날을 기념해 열린 축제에서 지역 어르신들은 맛있는 음식과 축하공연단의 신명나는 공연을 보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날 행사에는 용인연예협회(지회장 박수자) 소속 김준화, 박경숙, 한성에 씨의 노래마당과 이우경 씨의 벨리댄스, 대한적십자사경기지도사 청년회의 댄스 공연 등이 진행됐다. 또 백일지역 최고령인 이순례(100), 김애례(99) 어르신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행사와 어르신 장기자랑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효사랑 축제는 연꽃마을의 다섯 번째 요양시설인 용인노인전문요양원(원장 최태신) 개원을 겸해 진행됐다.

용인노인전문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를 계기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연꽃마을이 용인노인요양원(원장 김해정) 뒤편에 신축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이다.

용인노인전문요양원은 국비 20억 원이 지원돼 대지 10,964㎡, 연면적 2,509㎡(760평)의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올 1월 완공됐다. 수용인원은 약 100명으로 마사지실과 주간보호실, 식당과 각 생활실, 도우미방 등을 갖추고 있으며 전문요양보호사들이 상주하며 어르신들을 보살핀다.

용인노인전문요양원은 개원 전 안정적 인 운영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4월부터 요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본 요양시설 탐방 및 현장실습, 시범운영을 진행해왔다.

이날 개원식에는 이사장 각현 스님을 비롯해 김학규 용인시장, 이상철 용인시의회의장, 김관지 처인구청장 등이 참여했다.

개원식에서 각현 스님은 “3만 5000여 후원자들의 심시일반으로 연꽃마을이 올해 20주년을 맞게 됐다. 1993년 용인양로원 건립한 연꽃마을의 뿌리와 같은 이곳에 노인전문요양원을 개원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각현 스님은 “용인시 최고의 노인요양 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 시설 어르신과 지역사회가 소통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태신 노인전문요양원 원장은 불교계가 고령화 문제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서 드러나듯 고령화 문제는 한국사회의 당면 과제”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화 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 것으로 불교계는 요양시설 건립, 수탁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원장은 “어르신 축제는 요양시설이 기피대상이 아닌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로 거듭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불자들이 지역 어르신 축제에 활발히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이제 주변에서 80세 이상의 어르신을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됐다.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과 김학규 용인시장, 이상철 용인시의회의장, 김관지 처인구청장 등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 최태신 노인전문요양원 원장이 백일지역 최고령인 이순례 할머니에게 꽃다발과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10월 9일 용인 연꽃마을 노인요양원 뒤편에 문을 연 노인전문요양원 전경.

노인전문요양보험과 불교계 과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09년 기준으로 10.7%를 넘었다.

현재 불교노인복지시설은 2007년 말 기준으로 154곳으로 장기요양시설은 70여 곳, 치매단기보호센터 등 단기보호시설은 20곳이다.

불교계의 활발한 참여에도 노인복지 분야 활동영역은 점차 확장되고 있다. 자원봉사자 확보 및 체계화, 전문요양사 육성,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등은 노인복지계에서 일하는 관계자들이 공통된 목표다.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전생회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청원군 강내면 탑연리 388번지>

종무법인禪農敎團

우리불교조계종 입종안내

선농교단 총재 弘山 현불

「 建法幢立宗旨
明明佛勅曹溪是
第一迦葉首傳燈
二十八代西天紀
今朝禪農立家風 」

-永嘉玄覺證道歌中引用-

法の 것 밧 높여 이 道理 세움이어 스승의 밝고 밝은 가르침이라 제일조 가섭의 등불 始發로 하여 스물 여덟 등불이 서천의 불 밝혀 우리 불교 선농의 가풍을 세움이라

- 입종비 : 없음
- 입종서류 : 이력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명함판 사진 4매,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법당 안 밖 사진 1매

※각 사찰 인감증과 및 발급(차량구입 및 부동산 취득시)

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 총무원 수일사

- 주 소 :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오직리 611번지
- 사 무 국 : 070)8843-7620 / FAX 041)943-7620
- 총재직통 : 016-850-1208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배송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블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